

보이지 않는 일상을
끌어올리는 순간

2VE

2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소원 · 다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목차

후보소개

각자가 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여성주의
24대 총여학생회 평가
총여학생회와 교육권

루트 공약 살펴보기 - 공약 한 눈에 보기

공간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 공약1 - 여성주의 아카이브
- 공약2 - 페미니리 북카페
- 공약3 - 버지니아 프레스
- 공약4 - 송도캠퍼스

관계

'여성'과 '남성'의 관계 재구성하기

'여학생 리더십' 재구성하기

- 공약1 - 여학생리더십, 멘토링의 재구성
- 공약2 - 여강사, 여교수 임용
- 공약3 - 소모임 네트워크

몸

Free to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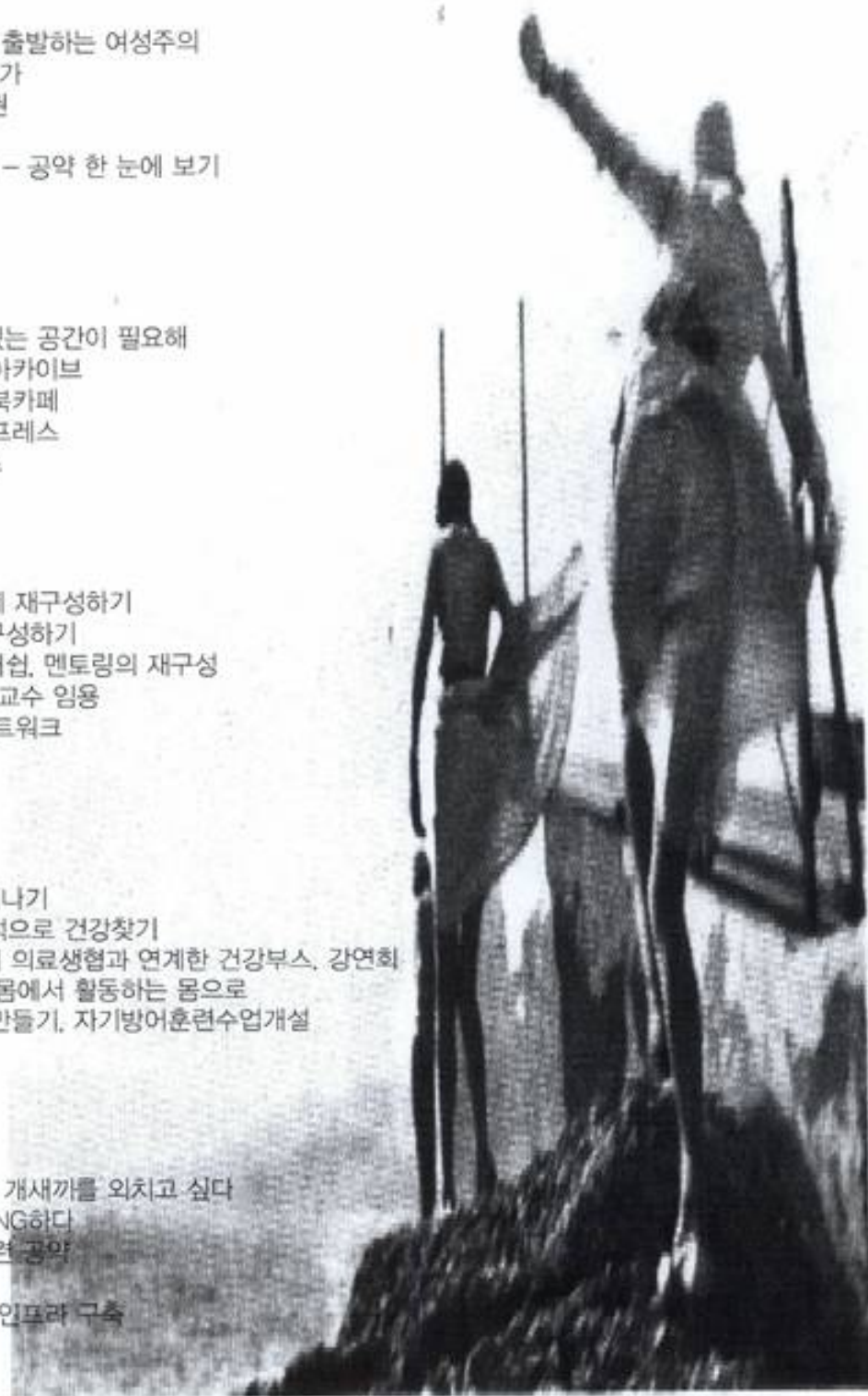
몸의 성별규범 벗어나기

- 공약1 - 여성주의적으로 건강찾기
: 살림 여성주의 의료생협과 연계한 건강부스, 강연회
- 공약2 - 보여지는 몸에서 활동하는 몸으로
: 운동 소모임 만들기, 자기방어훈련수업개설

반성폭력

세상의 중심에서도 개새끼를 외치고 싶다
반성폭력을 ROOTING하다

- : 자치규약 관련 공약
사례집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소원 (노어노문 10)



2010년

연세춘추 사회부 기자

120주년 메이데이 참가단 <스펙 뚫고 하이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주의 캠프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 물, 길> 1기

G20과 4대강에 맞선 <전태일 실천단>

2011년

연세춘추 사회부장

121주년 메이데이 공동행동 <Act 20>

Questioning,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 생태여행

2011 포이동 반빈곤현장활동

2012년

Occupy 대학생운동본부

330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 기획단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활동가

페미니즘 세미나 소모임 <관계, 그리고 시선>

2012 연세대 잡년행진 참가단

나에게 여성주의 공간은 '비빌 언덕'이다. 나는 학교에서 어디에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 글을 쓰고 싶어서 들어간 곳에는 오직 '중립'의 언어만이 존재했다. 그 언어로는 나의 위치도, 권력 관계도, 아무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여성주의 공간에서, 비로소 나는 마음 놓고 나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었다.

나는 학교에 여성주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으로 다가가고 싶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함께 학교를 여성주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

다현 (문화인류 09)



2002년

중학교 자퇴 후 게임 폐인 생활 시작

2004년~2007년

맥도날드에서 착취 당함

2007년

밴드하다 말아먹음

신발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생수 장사

2008년

대학 진학 결심

2009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입학. 학교를
잘 안 다님

2010년

문화인류학과 진학

G20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자원 활동

하자센터 달맞이 축제 진행

다시 노동 시작

조니워커 바텐더 스쿨 수료

2011년

희망제작소 CB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

여성주의 세미나 <피어나라> 활동

민달팽이 유니온과 반찬 만들기 교실 진행

살림 여성주의 의료생협에서 활동 (건강실천단,
거리건강검진, 현미채식 프로젝트 등 진행)

2012년

휴학 후 노동과 여성주의 세미나와 시위를 오가
며 재밌게 살다 복학

문턱 없는 밥집 살리기 대책위 활동

잘 지내고 있다고, 별 일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충분히 즐겁다고, 더 없
이 평평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이따금 느껴지는 불편함들을 마음 한 편
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매일 밤마다 괜찮다고 말했다.

어느 날 우연히 여성주의를 마주했다. 여성주의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너 정말
괜찮니?'라며 다정하게 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 때 처음 알았다. 내가 전혀 괜찮지
않았음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이제 이 평평하고 중립적인 세상 위에 균열을 내려한다. 그 균열 속에서 숨겨진 이야
기를 찾고, 드러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내려 한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넬 차례다.

'괜찮은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각자가 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여성주의

틀에 박힌 공간, 정해진 방식의 관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진 몸.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간, 관계,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선본 <루트>의 정치는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를 자유의사를 지닌 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사고했을 때 그 안의 여러 긴장요소들은 잊히기 쉽다. 조모임 활동, 과반이나 동아리 활동, 연애 등 그 속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 역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런 중립적인 공간과 조화로운 관계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이렇게 어떤 정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대신, 다수 일반의 권익 향상을 의미하는 '복지'를 내세우는 것만이 유일하게 치우치지 않은 정당한 입장으로서는 수용된다.

그러나 공간은 평평하지 않다. 학교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우선 강의실부터 살펴보자. 언뜻 보면 그저 교수는 강의하고 학생들은 이를 듣는 비정치적인 공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성차별적이거나 성폭력적인 발언, 그에 더해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쓰인 강의 내용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킨다. 과방과 동아리방에서 또한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 중심의 놀이 문화가 추가되며, 성별 권력, 나이 권력, 학번 권력에 따라 공간의 중심과 주변이 나뉜다.

공간에서 만들어진 관계 역시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다. 학교와 학생,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남성과 여성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권력이 작동하며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물론 권력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굳어진 권력은 그에 들어맞지 않는 이에게 폭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평분자로 간주되기 쉽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공동체'에 지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점이 된다. 스스로를 믿는 것만이 살 방법이라 되뇌면서, 그러나 나간 이들이라 해도 '규범'을 잊고 살기란 어렵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들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구분될 때 발생한다. 따라서

| 기조 - 각자가 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여성주의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범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 선본 〈루트〉에서는 공간과 관계에 불평등하게 배치된 권력의 존재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기반을 둔 규범의 작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단순히 수적으로 동수를 맞춘다거나, 양적으로 동일한 자원을 제공하는 기계적 평등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여전히 원래부터 그렇다는 이유로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범이 나누는 자연스러운 것들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의 경계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넓은 지대로서 존재한다. 단일한 규범이 상세하게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규율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규범에 맞는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규범의 지대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지대 밖으로 벗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학번 권력은 반드시 고학번이 저학번에게 행사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고학번이라는 이유로 조모임 활동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기도 하고, 여성이나 고시생의 경우 고학번이라는 것이 오히려 낙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권력과 규범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따라서 선본 〈루트〉는 권력과 규범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선본 〈루트〉는 선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규범의 작용 아래 놓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다가가고자 한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공간, 관계, 몸은 이렇게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규범을 폭로하고 흐트러트리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모이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는 점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는 힘이다. 각자가 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여성주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성주의다.

제24대 총여학생회 <연세 호 Talk> 돌아보기

연세대학교 제24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연세 호 Talk>(이하 '<호>')는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조 삼아 출발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총여가 학우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지 못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호>는 '다수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유리되지 않은 총여로서 학우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호(好)'라는 글자에 '남녀가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본 활동 당시 정책자료집 앞에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남녀의 진정한 조화와 공존이 가능할 것임을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性), 그리고 조화와 공존의 소망은 <호>의 모든 사업을 구성하는 바탕입니다.

그러나 <호>의 기본 정신과 사업의 실무 행정은 많은 과제를 미결로 남겨 두었습니다. <호>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두 개념을 별개로 나눈 맥락이 드러나지 않았고, 성폭력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생각되며 경험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호>에서 인지하는 성폭력의 개념은, 개인과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서사를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사고하도록 제한합니다.

성폭력을 정형화(typicalize)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가 제시하는 성폭력 개념과 그 대처 방식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 및 이에 깊이 얽혀 있는 강요된 여성성에 문제제기하지 못 했습니다. 총여로서 문제적 상황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성폭력을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상을 제시하지 못 한 것입니다. 이는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피해야 하는 존재'로 축소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호>는 성폭력을 사고하면서 개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간과하고 있는데, 이 점은 '여성운동'을 이야기하는 <호>가 여성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고찰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학내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는 남녀

| 기조 - 제24대 총여학생회 평가

사이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 성폭력, 그리고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분류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찰하는 사람이 겪는 불편함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호>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을 사고하는 대신 개인의 삶의 맥락을 삭제한 것입니다.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이는 '평범한' 여학생과 남학생이라는 식으로, 무엇이 평범한 것인지에 대해 자의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호>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차별을 묵인하여 총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결국 '조화로운 공존의 역설'을 낳았습니다.

즉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지 않은 많은 학우들을 배제한 것입니다. <호>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 사회는 그 차이에 어떤 시선을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는 과제와 조모임을 하면서 학업을 고민하는 여학생,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된 일을 하는 여학생, 몸에 대해 고민하는 여학생,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여학생 외에도 매우 다양한 여학생이 존재하며, 앞의 예시에 동시에 속하는 여학생도 존재합니다. '여학생'은 소수의 예시로 설명 가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 학내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공론화되고, '성평등 센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호>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여성운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도 그들 스스로 여성운동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호>는 여성의 몸을 여성 스스로 긍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여성 질환 예방 세미나>를 개최해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 했으며, 자궁경부암 백신 할인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이야기 없이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설명을 함에만 그치는 것은, 여성은 질병에 취약하고 그래서 '관리받아야' 한다는 통념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지 않는 학우에게 온전한 긍정과 존중을 받지 못 한다는 느낌을 주었고,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학우에게도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 기조 - 제24대 총여학생회 평가

예컨대 학내에서 여학우가 가장 밀접하게 겪는 몸의 경험은 월경입니다. 그러나 <호>는 월경 중의 여학우가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교육권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공존과 조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는 남녀의 공존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공존의 주체인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성공하려면 남성중심적 사회와 직장, 그리고 현장에 적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리더십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서기까지 선배님들께 있었던 삶의 고충과 노하우'라는 표현으로 공약을 설명한다는 것은, <호>가 추구하는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이 실제로 가능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호>는 공약으로 드러낸 입장과 이후 사업의 성격에 있어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학우들과 더욱 가까워지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개인의 삶을 배제하고 삭제하는 결과를 냈으며, 그 외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 사업들에는 학우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지난 1년의 많지 않은 활동에 대해, 제24대 총여학생회 <연세 호 Talk>는 어떤 '총여학생회'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와 교육권

학생회는 '학내'라고 불리는 작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필요와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자, 그 최소한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학내에는 여러 필요와 요구가 존재한다. 원하는 소모임을 꾸리기 힘들 수 있고, 더 많은 자치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교생활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등록금이 너무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개인들의 일이 아니라, 학생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학생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학생회다.

학생회 체계는 각 단과대의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그리고 학대운영위원회와 총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학생회 체계는 학내에 흩어져 있는 이런 개별적인 필요와 요구들을 끌어 모아서 공적인 장으로 가져오고, 이들을 공적영역 속에서 학생들의 권리, 즉 교육권으로 재정식화해낼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때, 학생들의 권리인 교육권은 학생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학생사회 구성원에게 보장하는/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즉 시민권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의 주체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며, 이를 실현한다. 즉, 학생회는 학생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장이다.

이런 학생회의 체계 속에 있는 학생회는 자신들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대의제 속에서 선거를 통해서 보장받는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뽑혔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없다. 대의하는 자와 대의되는 자는 재현하는 자와 재현되는 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현은 언제나 완전할 수 없고, 언제나 대의되는 학생들과 대의하는 학생회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간극은 학생회(혹은 그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동일시를 하게 되는 상황, 즉 학생회의 결정이 곧 학생사회의 결정이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준다. 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학생-대중의 의사와 같다는 확신을 할 수 없으며, 학생회는 학생-대중과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인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인해 실제의 학생들에게서 학생회가 유리될 수 있기에, 대중(Demo)의 지배(Cracy)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열어둔다. 학생회와 학생들의 분리는 학생회가 학생-대중들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마치 모든 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의제의 대의하는 자와 되는 자 간의 채워질 수 없는 간극은 역설적으로 대의제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모든 학생회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기에 언제나 자신들과 전체 학생들 사이의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내야 한다. 실제의 학생들이 학생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와 부침들을 겪고 있는가, 어떤 요구들이 학생사회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게 재정식화해내야 한다. 이는 단지 학생-대중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학생-대중이 요구하는 것이면에 존재하는 실제의 필요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대중의 요구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차원적-즉각적으로 일어나기에, 이를 공적인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제의 학생들의 요구와 그것에 대한 반영과 정식화를 오가면서 공적인 영역이 구성될 때, 우리는 대의제가 역동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시도들은 대의제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의하는 자는 이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하지만, 언제나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동원되는 수사가 바로 '일반적인 학생'이다. 학생회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지금의 즉각적인 요구들-이미 학생들의 요구라고 주어져있는 것들만으로 정당성을 얻으려 할 때, 학생회는 수적으로 다수라고 여겨지는 일반적인 학생을 전제로 두고, 자신들의 실천들을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한다. 즉, '일반적인' 학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의제 속에 존재하는 간극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누구도 아니며, 그들의 요구는 결코 실제 학생들의 필요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회 체계를 통해서 보장되었던 교육권과 공적영역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관성적인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총여학생회의 위치는 각별하다. 보통의 학생회 기구가 대의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간극을 가리려고 하는 반면, 총여학생회는 그 대의제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으로써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의 존립근거는 여학생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학생회 체계에서는 대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생회 체계 내에서 드러나는 '전체' 학생이란 언제나 남성이거나, 혹은 남성의 눈을 거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러한 학생회 체계 내에서는 여성은 대의의 대상이지만 대의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성이 여성은 스스로를 대의하는 총여학

생회가 탄생했으며, 총여학생회는 존재 그 자체로 배제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배제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일 수 없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의 존재는 언제나 이곳에 어떤 균열과 결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징표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언제나 특수한 위치에 놓이는, 혹은 언제나 몇몇의 부과된 이미지들로만 나타나는 여성을 여성 스스로가 재현하도록 함으로써, 총여학생회는 학생회 체계 내에 대의되지 않는 자들의 대표를 삽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자기 자신이 균열이고 결여임을 인식하는 총여학생회는 이미 의미가 사라져버린, 공적 영역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는 수사를 통해서 간극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던 학생회 체계 속에 총여학생회는 그 체계에서 배제되었던 학생들을 삽입함으로써,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닌 실제의 학생들의 일상과 삶 속에 존재하는 부침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겪었던 구조적 폭력과 배제의 기억을 되살려낸다.

그래서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그 균열과 결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활동이자, 그 역동성을 잃은 공적영역을 재구성해내는 일이다. 이를 인식하는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언제나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렇기에 언제나 보편성과 밀착되어 있는 활동들이다. 언제나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그것들이 모두의 권리가 아닌 일부의 권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를 통해서 보편적인 권리-교육권을 다시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우리 제2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선본 <루트>가 만들고자하는 총여학생회의 활동이다.

우리 제25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선본 <루트>는 지금 여학생 교육권이란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에서는 드러날 수 없었던 여학생을/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이는 모두를/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이다.

SISTER PICK ME UP

공간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학교 안에 모인 이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을 지닌 개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발 딛고 선 공동의 자리에서부터,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또다른 생활의 공간이 열린다. 현대 이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시선이 향하는 것은 아니다. 유별나거나 특출한, 그래서 규범 밖에 있는 듯 여겨지는 이들이 어느 집단에서든 좀 더 눈에 뜨인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찾아 익히기 위해, 그래서 보다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몸을 맞추고 말을 아낀다. 이런 흐름 안에 녹아 들어가지 못한 때의 앙금 같은 감정들, 누구든 마음 한 편에 한 덩어리쯤은 품고 살고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다수와 소수를 나누는 말들은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의미하는 다수/소수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가령 '상위 1% 소수의 독점'에서 소수와 '소수자 인권'을 말할 때의 소수는 거의 정반대 지점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늘 '어느 지평 안에서만' 다수자이거나 소수자이다. 게다가 남들이 보는 소수성과 자기자신이 생각하는 소수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한 자리에서 명백히 다수였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수나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입체적인 공간을 평면적인 것으로 압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때 가해진 압력이 전면에 나타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묵살된 가능성들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호 총여가 내세운 것은 정치와 복지의 이분법이였다.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정치는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는 다수 혹은 보편적인 여학생들의 권익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석된다. 그러나 '복지'가 정치의 과정 없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입장 차이에 촉을 세우겠는가. '복지'를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오며, 그것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자원의 분배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과정을 수반한다. 정녕 모두에게 똑같은 정도로 이로운 복지는 있을 수 없다. 호 총여는 의도적으로 이 지점을 은폐하면서 있지도 않은 '보편적 여학생'을 기준 삼아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말한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투표로 성립되는 대의기구이기에 생물학적 여성을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성별화되지 않은 학생으로서라면 여성이

공간 |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가 지향해야하는 것이 '보편적 학생'으로서의 여학생'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진다. 총여학생회가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오히려 '보편적 학생'으로 취급받기 위해 그동안 가려지고 삭제되어야만 했던, 오래도록 특수한 것, 소수의 것으로 여겨져왔던 여성의 경험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소수자로서의 여성을 되새겨보는 데에서부터 총여학생회는 사회 전반의 소수적 정체성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약2

페미니리(Feminism+Library) 북카페

학내 곳곳의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은 과방, 동아리방 등 기존 학내 자치공간의 남성 중심적 질서가 여학생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대안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수면과 자습, 간단한 음식물 섭취 정도로 굳어진 지금, 여학생들끼리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학내 공간의 가능성은 시나브로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여휴에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정숙'한 주변 학우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고,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에 노출되지 않은 채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에서만 여휴의 필요성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여휴가 여학생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여기에 갇히지 않는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지닌 공간을 또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주의가 부단한 오해 속에서 그 '진입장벽'을 높여온 상황을 감안, 계몽적인 '교육' 없이도 스스로 이에 편히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죠.

'페미니리 북카페'는 여성학 도서 및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이로써 여성주의적 태도를 자연스레 함양한 이들과 새로운 공간에서의 관계를 확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홀로 묵묵히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북 카페로서, 편안한 수다와 교류가 함께 하는 배움의 장은 이념으로 갇히지 않는 여성주의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카페를 내세운 만큼, 우리는 이 안에서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고, 필요하다면 교내 외의 텃밭 및 생태주의적 자급농 문화와 연대할 계획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받아온 압박 위에 성폭력적 분위기와 성별규범의 강요마저 견뎌내야 했던 여학우들, 페미니리 북카페에서 시원한 매실차 한 잔으로 불편한 속 좀 달래고 가지 않으실래요?

공간 | 공약3 - 버지니아 프레스



공약3
버지니아 프레스 : 버프

20세기 초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 '연간 오백 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난 여성 작가가 없는 것은 여성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 곳곳의 뿌리 깊은 성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요. '자기만의 방'은 여성이 외부의 간섭과 주어진 성역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녀들이 꺼내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 너무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생각지 않고 요즘 청춘들이 고립된 채 자기 문제에만 열을 올린다며 꾸짖는 것은, 책임을 묻는 곳의 번지수를 착각한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SNS를 말하지만 여기서 개인의 말들은 너무나 쉽게 흩어지고 잊혀집니다. 그동안 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꺼내놓고 싶은 21세기의 버지니아들은 오늘도 '자기만의 방' 안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출판해줄 '프레스(pres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압력(press)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깊이 내켜서 길어올린 감정들, 누구도 가치있게 봐주지 않을 것 같아 한동안 접어두었던 생각들을 되새겨본 후 하나의 이야기 묶음으로 엮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란 반드시 단정한 언어와 명료한 표현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중얼거림도, 얼버무리기도, 아예 활자화되지 않는 이미지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통 불가능'이라 낙인찍기 전에 무언가를 절실히 드러내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먼저 다가가고자 합니다.

버지니아 프레스는 소규모 매체 출간에 관심있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언제든 몸을 누일 수 있는 너른 풀밭처럼, 학내 여론의 흐름에 변화를 주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폭넓은 시선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캠퍼스 교육권 공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입생 국제캠퍼스 RC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13학번 새내기에는 한 학기를, 14학번 새내기부터는 1년을 송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캠퍼스의 설계에는 여학생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국캠에서는 밤에 가로등을 충분히 켜놓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의 입장에서 너무 어두워서 바깥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의 입장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제캠퍼스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강의와,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 인력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루트〉에서는 국제캠퍼스 가로등의 조도 향상, 휠체어 이동경로 확보, 여성주의 강의 개설, 성폭력 상담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할 것입니다.



관계



사회를 비추는 거울, '여학생과 리더'

새삼스럽지만, 어느 순간부터 '리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상적이 되었고, 누구나 '리더'에 걸맞는 자질을 갖춰야 할 것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대학교육을 받고 '여성'이라는 위치에 있는 '여대생'들에게 리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멋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여대생', '여대생이 꼭 알아야 할 혹은 본받아야 할 리더', '여대생과 리더십'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강연, 도서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접할 때 우리는 흔히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완벽에 가까운 자질을 갖추고 중심의 위치에 서는 리더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일까? 학부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잠깐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리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리더 이미지는 정치나 재계에서 비춰지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남성 리더'라는 단어는 거의 찾기 어렵고 어색한데, '여성 리더'는 어디서나 강조된다. 남성이 지닌 '남자다움'은 곧 강력한 리더십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같은 말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스러움'은 리더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성 리더'라는 단어가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성은 원래 리더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리더가 되기 위해 더더욱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학내의 여자 친구들을 벤치에서, 공터에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리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미묘하게 느끼는 어려움이나 그 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아, 내가 겪는 고민이 나만의 것,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정말 '멋진 언니'로 보였다. 보통 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친구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리고 '내가 너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느낄 수 있었다. '진짜 카리스마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나아가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여성 리더의 모습은 여성이기에 겪는 고민, 나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끊임없이 지지하는 모습이다. 여대생 리더십 강연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의 많은 여자 친구들과의 만남이 바로 힘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출발이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선본 <루트>에서는 '리더'가 과연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리더'가 정말 나와 가까운 것인지 고민하고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한다. '여학생에게 있어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멀리 혹은 가까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도 마음껏 풀어 놓으려고 한다. '리더라는 개념은 남성에게도 불편해!'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자 한다.

선본 <루트>의 관계 공약 1

고민을 나누고 힘을 받는 리더십 강연회와 멘토링

선본 <루트>는 남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리더십 강연회와 멘토링을 열고자 합니다. 선본 <루트>의 리더십 강연회와 멘토링은 그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혹은 어떤 경험을 더 한 사람이 덜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쪽으로 전달되는 관계를 지양합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비법을 일방적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여대생 리더십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한 삶의 방식을 온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공약 3

소모임 네트워크

총여학생회는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고자 하지만, 학생회로서의 역할과 중앙 단위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학내 곳곳에서의 움직임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소모임을 꾸리려는 여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그와 연대함으로써 학내 전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소모임이 전혀 눈에 띄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모임을 만들면 지원하겠다 한다면,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소모임의 예시를 몇 가지 마련하고, 학기 초 거리투표를 통해 많은 지지를 얻은 소모임들을 기획, 추진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소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안을 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생각해둔 소모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문입술 열기

여성문학 탐방 소모임. 자신의 언어를 발견해 낸 여러 선배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거기서 얻은 감상을 바탕으로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2) 바느질 워크숍

조각난 경험을 잇는 수공예 소모임. 각자 헌옷가지를 한 벌씩 가져온 후 그 옷에 얹힌 자신의 추억을 함께 나눈다. 그런 다음 그 옷들을 잘라 여러 조각의 천으로 재단하고, 그 천들을 서로 패치워크하여 주머니, 지갑 등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본다.

(3) 키친실험실

생계형 간단 요리 모임. 버너와 샐러드 볼, 거품기 등 간단한 조리기구를 구비하여 학내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는다. 그동안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가사노동으로서의 요리, 또는 '요리대회'등으로 가시화된 경쟁으로서 요리의 의미를 탈피하여,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4) 모여라 후원주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조합, 노동야학, 여성단체, 인권영화제 등 학내외 다양한 운동(movement)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힘을 얻고 활동할 재원을 얻기 위해 후원주점을 여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주점들, 좋은 일이니 참여하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뿔뿔하다면? 뜻 맞는 사람끼리 같이 가자. 관심사가 같으니 이야기도 잘 통할 테고, 미처 몰랐던 다양한 활동단위들도 알게 되니 좋지 아니한가.



여강사 여교수 임용 공론화를 위하여

오늘날 학생회장, 과 수석 혹은 고시 합격자인 여학생은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대생 비율이 절반에 달하게 된 지금,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 여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미심쩍은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여학우들이 강의실 안에서의 성폭력적 경험을 고백하는데도,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07년 연세대학교에 월경공결제가 도입되었지만 아직껏 여성의 몸이 겪는 경험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일이 잦습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들의 사회에서 주류인 남성들의 경험이 보편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으며 종종 드는 의문들, 마땅히 답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 내용에 부족함을 느껴도, 그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불만을 속으로 삭여야만 하지는 않았나요? ‘알파걸’ 담론이 일반화되면서 곳곳에 여학생의 능력을 찬미하는 말들이 난무하건만, 이렇게 우수하다고 하는 여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될 여성 교수를 찾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여성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렸지만, 여성이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교수의 부족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대학생에게는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하여 각 전공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안목을 갖춘 교수의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 이후 여학생과 남학생의 미래 설계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학부에서 우수한 여학생이었다 해도 대학 졸업 이후,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여교수와의 관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성평등한 대학사회를 위하여, 선본 <루트>에서는 학생사회 내 여강사 여교수 임용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적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 각자의 근황, 고등학교 소식 그 밖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밥을 먹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친구가 식사는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식당이 혼자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치페이가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친구는 굳이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식당을 나오면서 원래 남자가 식사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동성친구 사이였다면 틀림없이 더치페이를 했을 텐데, 문제는 그 친구가 남자이고 나는 여자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를 어디까지나 그냥 친구로 생각했을 뿐인데... 도대체 남자 여자라는 게 무엇이기에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돈은 그 친구가 다 내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남과 여가 원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한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남자는 원래 여자 앞에서 자신이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한다. 한편 여자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든직한 남자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여자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면 된다. 하지만 남자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을 때는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요령껏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센스있는 여자가 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식사 후 커피는 여자가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자도 여자도 모두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남과 여의 성향이 원래 다르다는 주장은 실제로 증명할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다. 내 친구가 식사를 산 것은 물론 자신이 남자로서 어필하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원래부터 자신에게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성별에 대한 모든 통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지 않는 한은, 남과 여가 '원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회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자와 남자라는 꼬리표는 끈질기게 우리들을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누구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스러울 것이고, 또 누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람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꼬리표는 모든 관계를 간단하게 규정해 버린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

관계 I '여성과 남성'의 관계 재구성하기

이 맺고 있는 관계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라고 해도 내 친구와 나 같이 '그냥 친구'사이인 관계가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여자사람', '남자사람'이라는 희한한 표현을 써야만 한다.

여자와 남자라는 꼬리표를 아예 없애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그 꼬리표만 보고 관계를 규정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났던 날, 순전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밥을 얻어먹은 것이 영 불편했다. 그것은 그냥 커피를 내가 사는 센스있는 방식으로 해결될 만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굳이 더치를 했다면 그 친구가 더 불편해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날 주머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다. 혹은 그 친구가 나에게 고마운 일이 있어서 밥을 사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남자니까', '여자니까' 네가 밥을 사고 나는 얻어먹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관계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늘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네가 고마워.
어쩌면, 나는 이 말을 꼭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듣고 싶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듣고 싶었어.

내 몸이 싫지는 않았지만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닌
여성은 이래야 하고, 남성은 이래야 한다는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온전한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봐
마음 한 구석엔 늘 '무서움' 이 자리잡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어느 날 밤 불을 켜지 않고
샤워를 하면서 계속 울고 계속 울고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물과 눈물이 내 몸에서 뒤섞이면서
그 물로 내 몸이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참 많이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속에 새겨지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정상적인 몸' 에 대한 의문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
내 몸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치던 날들
그 감옥은 늘 내 삶의 벼랑 끝에 있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내 몸이 사라질까...?
그 끝으로 떨어지는 순간 알았다.

움츠러들어 단 한번도 볼 수 없었던
내 안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그 감옥을 탈출했을 때
울고 있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던 나를 만났다.
나는 네가 고마워

4년 만에 건넌 나의 목소리에

다시 나는 이야기하였다.

나는 나야. 너의 삶을, 너의 몸을 단 한번도
놓지 않아서 고마워.

시선, 수군거림으로 상처났던 나의 몸은
수줍게 그리고 당차게 나를 만나고, 껴안으면서 조그마한 자국을 남겼다.

나는 내 몸에 채워지고 돌아난
그 자국이 가장 예쁘다.

자국의 이름은
나를 향해 꽃혔던 시선도, 오랫동안 불려진 나의 이름도 아닌

Free To Me



몸의 성별규범 벗어나기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고민하는 나 자신을 응원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나는 이를 두고 한참을 고민했다. 지금 내 모습을 거울로 보고, 지금의 나를 둘러보며 고민하던 중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글을 쓰는 즐거움 중의 한 가지가 이런 것이다. 조각 조각으로 남겨져 있던 기억을 맞추고, 재조명하기.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앞의 문장과 일치한다. 당신의 성(性)에 관하여, 즉 이룰테면 당신 안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에 관하여 조각 조각으로 남겨져 있던 기억을 맞추고, 당신의 성(性)을 재조명하기. 누군가는 이 글을 흥미롭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무슨 뜻이지'라며 가웃거릴 수도 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겹친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이는 스스로를 향한 두드림이라고 생각한다.

1년 전이었는지, 2년 전이었는지. 과제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동생이 나의 방에 들어왔다.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동생은 내일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 과제를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섹스(sex)와 젠더(gender)의 차이를 발표해야 하는데,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난 젠더라는 단어 처음 들어.”

나는 두 단어가 사람의 성별을 이야기 하되, 앞의 단어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에 중점을 두고 뒤의 단어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별을 설명할 때 쓰인다고 간략히 대답했다.

동생은 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젠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굳이 나누어서 단어를 만들고, 결국 태어나기를 여성 아니면 남성이고 내가 누군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사회-문화 안의 성별이라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대화는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동생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gender 라는 단어를 두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두에 굳게 활자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주제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

타고나는 것일까?) 내 안에 있는 여성성, 어떻게 <정의내리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속에서, 대학교라는, 학내라는 공간이 학생이라는 위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신을 참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난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싶고, 수동적으로 보이는 건 싫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비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술자리 가질 때 분위기 즐기면서 술 먹는 건 좋은데 동행한 상대방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아니면 술 먹는 건 싫은데 분위기는 맞춰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늘 마주치게 한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들. '나는 이상한 여학생인가?' '나에게 여성이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예민한 건가?? 무엇이 문제일까????'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 이는 자신이 정하기 나름이다.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다양한 사회 곳곳에서 주입된 가치관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그 가치관에 동의하는 걸까.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여성성은 어떤 걸까. 통념 속 여성성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면, 이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던져야 할 메시지임을 말하고 싶었다.

여성성이라는 것,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것. 어떤 학생들에게는 많이 들어 본 단어, 어떤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 같다. 내가 기쁘게 인정하든, 아니든 나는 한 여성으로서 각인이 된다. 누구나 생각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나는 나'로서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학도 갔으니 좀 여자답게 꾸미고 다녀'라든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실례인 거 모르니?'라는 힐난을 들을 때 외모로 보여지는 여성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외모', '외모', '외모'... 나의 외모는 눈에 보이는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닌 내 '몸'이다. 보여지는 내 몸을 두고 사람들은 많은 평가를 하고 수식을 붙인다. '여자가 좀 너무 보이쉬해서... 외모에 관심이 없나봐', '솔직히 살은 빼야지 않니? 진짜 <넌 위해서 하는 말인데> 보기에 좋진 않아... 시집은 갈 거야?' 등등. '나를 위해서 말하는' 평가와 조언 그리고 진단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이고 싶어하는지에 관하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없이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 속에 담겨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은 사회적인 통념과 연관이 있고 흔히 떠올리게 되는 '여성성'을 체화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성에 관한 통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어느새, 그것이 내 몸을 제약하고 내 몸을 내가 아닌 사회의 요구에 맞춰야 하고 여성성이 무엇인지 궁금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스스로, 진지하게 '여성으로서의 나'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어도 대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여성이라는 인식을 '특별

몸 | 몸의 성별규범 벗어나기

히'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걸까.

성별이라는 것, 아직 감이 잡히지 않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여자다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함을 느낄 때, 이 글을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으면, 하고 바란다.

여자친구들끼리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
께.

1.

눈두덩이와 임파선이 툭툭 부었다. 심한 몸살을 앓을 때처럼 머리는 무겁고, 온 몸이 쭈서 온다. 아오 씨,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은데. 이틀 치의 투덜거림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며 병원에 간다. 최대한 상세히 내 몸의 상태를 설명한다. 날 때부터 하도 병원을 들락거리다보니 예전보다는 내 몸을 말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진 편이다. 처방전을 받고 나서야 아차 이걸 말했어야 하는데, 싶은 순간들이 확실히 적어졌으니까. 뭐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려나.

“원래 몸살이 심하면 알려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임파선도 부을 수 있어요. 일단 해열제와 진통제 처방해 줄게요. 밤에 하나씩.”

뭐? 난 몸살같은 증상이 있다고 했지 열난다고 한 적 없는데? 나 열 없는데? 으아니! 왜 내가 몸살기운이 있다는데 당연하단 듯 해열제를 처방해주는 건데?

“아... 스... 저.....”

말문이 막혀 머뭇거리는데 친절환 의사가 다음 환자를 ‘소환’ 한다. 오늘의 진료 시간은 1분 30초.

2.

코 주변에 여드름과 뾰루지가 꽃 피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트러블팩을 얼굴에 치대 보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엄마는 웃으며 “결혼만 하면 싹 낫는다”고 말한다. 아, 또 저 소리다. 얼마 전엔 생리 불순으로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씨익 웃으며 “결혼만 하면 다 낫는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가을이 되니 몸이 부쩍 안 좋아졌다. 엄마가 억지로 한의원에 끌고 갔다. 이리저리 진맥해보더니, 나이 지긋한 한의사까지도 결혼하면 다 나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 나보고 대체 어찌라는 건지. 결혼, 결혼, 결혼. 그게 도대체 뭐라고 결혼만 하면 다 좋아진단 말인가! 아주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모두가 결혼을 하는 전원 결혼 사회가 출현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의 일부가 파탄 날 기세다. 그렇다면 남성과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비혼주의자이자 레즈비언인 나는 평생 호르몬 문제로 골골 거려야 한다는 것인가.

*

학내의 건강 관련 강좌는 언제나 '의사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진행됩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바짝 '쫄기'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아픈 몸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것이 당연히, 그리고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누군가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잘 아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현재 학내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는 연사의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거나, 일반화된 정보만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로 '표준'의 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에 들어 맞지 않는 특수한 몸과 아픔들은요? 두 사람이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성별, 신체적 차이, 심리, 자신을 정체화하는 방식 등에 따라 아픔이 드러나는 형식과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요. 몸살이니 당연히 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처방전을 휘갈기는 어느 의료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몸에 대해 말하고, 내 아픔의 특수성을 제대로 드러낼 기회 자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요?

〈루트〉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에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표준'에 기반해 서만 설명되는 누군가의 몸에 대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설명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 외에도 현대의 의료 체계가 지닌 모순들에 대해, 이를 위해 조심스레 성인지 의학, 그리고 의료 생협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성(性)인지적 관점을 중시하는 의료인은 의료가 단지 생물학적 현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들과 맞닿아 있다는 믿음을 지닙니다. 현대 의학이 말하는 '표준'의 몸은 여전히 남성-백인-성인-비장애인-이성애자를 전제하고 있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서 멀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성의 몸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볼까요. 한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차이를 지니는 일반적인 여성의 신체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정서, 정신, 행동 양식과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그녀의 위치 또한 의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90년대에 시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남녀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의 2/3 정도가 연구 과정에서 오로지 남성만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이 말하는 '표준'이나 '중립성'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루트는 다양한 몸을 지닌 학내 구성원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의료·건강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통이 부족한 학내 건강강좌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편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건강 강좌와 의료 사업을 재구성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은평 살림 의료생협의 구성원들과 연계해 건강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은평 살림 의료생협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공간은 지역, 사람과 연대하는 의료 속에서 여성주의와 건강을 녹여 내려하는 곳입니다. 살림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이나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처럼 '보편적인'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부터 성소수자, 비혼주의자까지……. '보통의'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누군가, 그렇지 않은 삶을 계획하는 누군가의 삶과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곳인 것이죠. 루트는 살림의 사람들을 만나 이러한 고민을 나누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답니다.

학내 건강 강좌의 논의를 확장하고, 소통이 오가는 건강 강좌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여성주의 의료생협과 연계해 건강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루트는 학내 건강 강좌의 논의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몸에 '만' 초점을 맞추는 강좌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건넬 수 있는 강좌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특정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내 몸에 대한 고민과 위험이 모두 해결되는 건가요? 현대 의학의 체계 속에서 여성의 몸은 철저히 자궁과 유방을 가진 '어머니의 몸'으로만 환원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고민하기 위해 유방을 케어해야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내 몸의 꽃"인 자궁을 지켜내야 합니다. 분명 모든 여성이 출산과 임신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몸을 이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여성의 몸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에서 벗어나 낙태, 피임, 월경통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과 긴밀히 연결된 다른 건강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연사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주가 되는 강좌가 아닌, 소통이 오가는 건강 강좌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강연을 듣는 여학우들이 자신의 일상과 경험을 편히 이야기 할 수 있고, 궁금하거나 불편한 지점에 대해 연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몸 | 공약1 - 여성주의적으로 건강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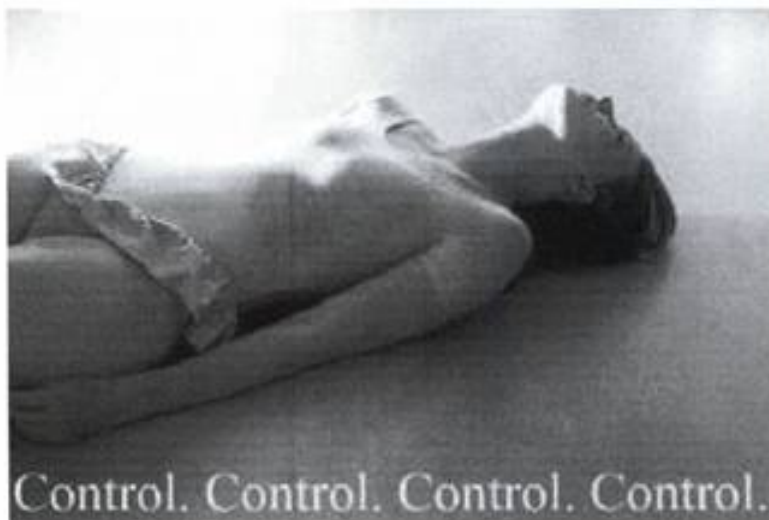
런 강좌 말입니다. 이를 통해 몸과 일상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막연히 병원에 가기 두려웠던 누군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 키워나갔던 누군가가 아니라, 내 몸을 좀 더 편안히 말할 수 있고 보다 건강한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Diet supplement

오늘도 운동을 못 갔다. 내일 모레면 쪽글 하나에 서평 하나가 마감이다. 운동을 못하는 것도 짜증이 솟구치건만, 조모임을 하며 샌드위치 까지 먹어야 했다. 학관 매점에 샐러드가 동나는 날이면 기분까지 바닥을 친다. 오늘 점심도 살찌는 걸로 먹었는데, 어찌지? 찼을까? 찼겠지? 찼을거야. 아, 얼마나 찼을까? 내일이면 체중계님께서도 나를 징벌하시겠구나.

그나저나 주말에는 엠티에 가야한다. 보나마나 과식을 하겠지 싶다. 과식은 싫지만, 그런 자리에서까지 밥 안먹는 애 티를 내기에는 좀 민망하다. 사실 나도 엠티날 지글거리는 삼겹살을 보면 참을 수 없어지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할까. 마침 친구가 한번 먹어보라고 한 팩 쥐어 준 탄수화물 차단제가 눈에 띈다. 식후 30분 안에 먹으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짹짹 몸 밖으로 빼준다고 한다. 이 폭풍설사 유도제가 정말 몸에 괜찮긴 할까? 살다살다 '천연 성분'이라는 표현에 쥐뿔도 설득될 수 없는 경우는 또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한 편으론 내가 주워먹은 게 살로 가는 것보단 낫지 않나, 하고 고민하는 내가 있다. 정말 이걸 먹으면, 약 이름처럼 내 과식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까?

오늘따라 Diet supplement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열량을 태우고 없애고, 무언가를 차단해서 밑으로 쪽쪽 뱉아내는 이 요물이 정말 결핍을 보충하는 '보충제'일까? 대체 어떤 결핍을 보충한다는 것일까? 혹시 내가 보충물이 아닌, 새로운 결핍을 내 몸속에 꾸역꾸역 채워넣으려는 것은 아닐까.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몸 | 공약2 - 보여지는 몸에서 활동하는 몸으로

여성의 몸은 흔히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됩니다. 여성 자신도 이러한 평가에서 자유롭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학우들 중의 상당수도 보다 날씬하고 여성스러운 몸매를 지니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과연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만 맞추어 평가되어야 할까요? 끝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평가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몸을 좀 더 건강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선본 <루트>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운동'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운동은 자기 관리 혹은 다이어트라는 목적 하에 몸매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에서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다이어트의 압박에서 벗어나 운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몸을 움직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 몰두하며, 땀 흘리고, 운동 후의 기분 좋은 나른함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몸이기보다는, 스스로 활동하는 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신촌에 있는 여러 피트니스 센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운동을 접할 기회는 의외로 적습니다. 학교에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남학생들의 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들은 운동장을 누비며 운동하는 것은 여학생이 아니라 당연히 남학생뿐이라고 배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여학생에게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피트니스 센터를 제외한 학내 시설을 이용할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함께할 동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에 선본 <루트>에서는 여학생 운동 소모임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소모임을 통해, 몸이 둔하거나 경기 규칙을 잘 모르더라도 서로 배워가며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히 몸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개설하려 합니다.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맞는 여성의 몸이란, 한편으로는 밤길을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방어훈련을 통하여 몸의 활동력을 기를 때, 여성은 스스로의 몸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학생과 운동

여성의 몸은 흔히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됩니다. 여성 자신도 이러한 평가에서 자유롭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학우들 중의 상당수도 보다 날씬하고 여성스러운 몸매를 지니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과연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만 맞추어 평가되어야 할까요? 끝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평가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몸을 좀 더 건강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루트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운동'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운동은 자기관리 혹은 다이어트라는 목적 하에 몸매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운동에서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다이어트의 압박에서 벗어나 운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몸을 움직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 몰두하며, 땀 흘리고, 운동 후의 기분 좋은 나른함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몸이기보다는, 스스로 활동하는 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신촌에 있는 여러 피트니스 센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운동을 접할 기회는 의외로 적습니다. 학교에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남학생들의 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들은 운동장을 누비며 운동하는 것은 여학생이 아니라 당연히 남학생뿐이라고 배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여학생에게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피트니스 센터를 제외한 학내 시설을 이용할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학생에게도 학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루트는 '여학생 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루트의 여학생과 운동 공약

1. 여학생 운동 소모임을 조직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데 같이 할 공간도 사람도 마땅치 않으신가요? 루트의 운동 소모임을 찾아주세요. 소모임 게시판에 관심이 가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같이 할 사람들을 기다려 보아요. 서투르고 어색해도 신나게 농구를 해보는 건 어때요? 축구공

에 정말 맘에 안 드는 인간을 투사해 빙빙 차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 건물들 사이에서 프리러닝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학내의 다른 여성 운동 소모임과 연계해 신나게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땀흘려 운동하고 난 뒤엔,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뒷풀이 시간도 가져봐요.

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개설하겠습니다.

호신술 수업이 있으니 괜찮다구요? 루트는 학내 호신술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맥락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저 신체를 보호하는 '기술'만을 말하는 일반적인 호신술과는 다르게, 여성주의적 자기방어훈련은 몸에 내재되어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공포, 위축, 방어적 표현, 불안감 등을 함께 몸으로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나아가 '여성'의 몸을 지니고 경험해왔던 상황, 공포, 피해, 관계 등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여성주의적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내가 왜, 우리가 왜 그 때 그 순간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함께 되짚고, 성적 폭력에 대한 '각본'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루트는 학내에 여성주의적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개설하고 여학생의 몸과 행위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피워내려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개XX를 외치고 싶다.

열한 살. 내 이야기를 듣던 친한 친구가 말없이 불편함을 드러낸 이후로 나는 모두에게 침묵했다. 내 탓을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렵기만 한 일이었다. 주변에는 내 경험을 공감해 줄 이도, 지지해 줄 이도 없었다. 입을 꼭 다물고 참고 있다가도, 가끔 너무 화가 나 이불을 걷어차곤 했다. 악몽을 꾸는 적도 많았다.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나의 '침묵'이었다. 덕분에 내 주위엔 "그건 일찍 집에 오지 않은/조심성이 없는/어른들 말을 잘 듣지 않은 네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싸고돌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입을 다문 나는 '순결한 꽃'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저 '불쌍한 여자'가 되었다. 더욱더, 굳게 입을 닫았다.

스물 한 살. 여성주의를 만났다. 그리고…….

스물세 살. 학내의 한 여성학 수업에서 자신의 학내 성폭력 경험을 말하다, 어느 순간 말 대신 울음을 끄집어 내는 사람을 여럿 만났던 적이 있다. "저런 개XX!"을 외치며 공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용기는 부족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 눈물에 조금도 '내 탓이야'가 섞여있지 않길 바랐다.

가끔 그 때를 후회한다. 나는 왜, 좀 더 제대로 된 공감을 건네지 않았을까. 왜 용기를 내 말하지 못 했을까. 그건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그 말을. 어느 날 여성주의가 내게 들려주었던 그 다정한 말들을.

누군가가 여성주의적 공간에서 말할 용기를 얻었다면, 나는 여성주의를 만나면서 예전의 경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처음 만난 여성주의는 마치 날카로우면서도 통쾌한 공식 같았다. 내가 겪은 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술한 이름과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 이야기들이 내 경험과 이어지고, 나를 치유해 낼 수 있다는 것도. 김 서린 유리창을 정성껏 닦아낸 것처럼, 나의 고통과 분노는 한결 명확해질 수 있었다.

반성폭력 | 세상의 중심에서도 개새끼를 외치고 싶다

하지만 그 명확함이 언제나 통쾌하고 기쁘기만 할 수는 없다. 누군가를 찌를 수 있었던 그 날카로움이 때로는 날 파고드는 것이다.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찾게 되면서 오히려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이 많아지기도 했다. 아, 나는 그 때 정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구나. 그 때 내 대응이 오히려 그 놈이 더욱더 자신의 환상을 견고히하는 계기가 되었구나. 그 때의 내 대응이…… 나 스스로를 가해를 즐기는 존재, 혹은 가해자를 '유혹하는' 존재로 만들었겠구나.

그럼에도, 여성주의가 내가 좀 더 맘 편히 이 개XX!를 외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해준 것도 여성주의였다.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었고, 나는 그 폭력을 마주하던 순간 사건 자체에 갇히고 멈춘 '피해자'도 아니었다. 나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고민해야할 생존자이다. 개XX를 개XX라 부를 수 없었던 긴긴 밤들이, 이제야 겨우 지나갔다.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여성주의적 날카로움과 통쾌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이어나가고 싶다. 내 경험이 존중 받았고, 누군가가 말을 꺼낼 수 있었던 여성주의적 공간이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생존자들을 만나고 싶다. 괜찮냐고 묻고 싶다. 한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에게 건넬 수 있는 공감과 지지를 건네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함께, 세상의 중심에서 개XX를 외치고 싶다.

反성폭력을 ROOTING하다!¹⁾

성적인 타자들을 향한 폭력에 대항하여, 타자의 윤리로 맞서기

약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자주 무너져서 그만큼 단단하다. 단 하나의 친숙한 몸짓에도 기댈 수 없이, 낯섬과 불안과 모호함이 틈입하는 것을 견뎌왔으므로, 은밀하게, 그토록 가까이, 나의 존재와 얽혀들었던 '폭력'을 우리는 꾸준히 기억해왔다. 씹어 삼키고 소화했다.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고, 계절이 바뀌었고,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나의 존재와 그 폭력을 떼어낼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 나의 존재가 그 폭력을 불러들이고, 용인하고, 부추기고, 조롱하고, 껴안고, 부수고, 무마하고, 복수하고, 되풀이하고, 윤색하고, 잊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함께 살아낼 수 있을까. 눈과 귀와 손가락들의 사이가 한없이 먼 하나의 몸을 이루거나 혹은 지워가며 계속 삶을 이어갈 공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1.

인간은 다양하고 복잡한 '성(性)'을 지닌 존재다. '성'을 태어나서 지정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만이 아니라 '젠더'로 읽어내야 하는 까닭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가족, 문화, 소비수준, 노동, 학력 등 누군가를 자기 자신이도록 하는 일상의 모든 부분의 총체가 젠더이며, 젠더를 분리한 채 이 영역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상의 관계맺음을 서로가 젠더로서 읽히고 젠더에 반응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난다.

젠더를 여성과 남성만으로 사고할 때, 가족이나 노동, 학교, 연애, 공동체 등의 영역에서 젠더를 삭제할 때, 보이지 않는 폭력이 발생한다. 여성성이 특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규범적 이성애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여성의 노동이 비정규직화, 주변화 될 수 있는 까닭은 특정한 성적 표현과 생애 서사를 기준으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단일한 성을 유지하려는 강박은 조금이라도 비어져 나오는 것을 관찰하

1) 동사 Root : 1) 파헤치다 2) 지지하다

고 혐오한다. 또한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다양한 젠더 실천의 배제는 모든 사람에게 폭력적이다. 단순한 다양성의 인정 뒤로 숨어, 젠더 실천의 역학이나 위계를 보지 않는 것 또한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은 두 가지의 성의 조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몸-관계-공간만을 허락하겠다는 규율이다. 양성평등이 존중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한계는 생각 외로 비좁다. 23대와 24대 총여학생회에서 내건 양성평등의 기치는 '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이 6년에 걸쳐 합의한 성인지적인 성과에 대한 역행이다. 학내의 성인지 수준을 높이고 성평등한 문화를 이루기 위한 위와 같은 학생사회 전반의 합의는 곧 총여학생회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의의를 공론화해 온 바에 힘입고 있다. 지난 8월 설립한 성평등센터의 이름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한다는 사실 또한 이에 대한 반증이다.

好락호락한 반성폭력 운동은 한계가 명확하다. "여성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는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현재 사회적 시선의 수준이 실상 성폭력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절대 비판할 수 없다. 성폭력의 해결책은 화학적 거세, 치안 강화, 품행방정과 일찍 귀가, 사후피임약 및 낙태,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의도하는 성적 보수주의)가 될 수 없다. 남성을 모두 거세하지 않는 한, 여성이 모두 가족의 품 안에서 정숙하지 않는 한, 여성이 혼자 살거나 밤길을 다닐 자유가 있는 한 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생각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참한 방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아무리 여학생 리더십을 이야기한들, 결코 독립적인 여성의 삶을 지지하는 정책을 이끌어낼 순 없다는 뜻이다.

당신은 정말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여성이 연애, 성적실천, 일터, 밤길, 자취방, 과/반이나 동아리 등 무수한 공간과 관계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를 검열해야 한다는 것에. 밤길을 걸어 통학하기 위해선 꼭 이글가드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연애에서 데이트 성폭력을 겪지 않기 위해선 일치감치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꼭꼭 택시비를 챙겨다녀야 한다는 것에. 피임, 낙태, 성매매, 호모포비아와 아웃팅 등의 사건에서 스스로의 결정권에 따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에.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움츠러들라고, 자책하라고 강요하는 말들은 깨트려져야 한다.

여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훈육하여 성애적이고 모성적인 몸으로 속박하려는 모든 시도는 폭력이다. 가족과 학교, 국가, 자본은 합심하여 그런 몸만을 인간으로 인정한

반성폭력 | 반성폭력을 ROOTING하다

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몸으로 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가 특정한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기를 강요받는 것, 성적인 차이로 인해 관찰과 혐오,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그가 살아가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들을 박탈하는 것이 폭력이다. 성적으로 억압받지 않을 권리, 성적인 피해의 공포 때문에 움츠러 들지 않고 살아갈 권리,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누구와 있었는지 혹은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장애여부, 고용관계 등 때문에 성적인 피해를 드러내고 해결하고 치유받는데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날의 폭력적인 삶 안에서 유동하고 경합하면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소리 높여 알리고 끌어올리고 변화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제도와 물리적인 공간, 공론화의 필요성을 만드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책무이다.

공약 1 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다시 쓰기

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합의의 성과이자 기준입니다.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함께 살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이 말들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까닭은 우리들 사이에 평등과 폭력, 차이와 차별에 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워내려는 노력이 지독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내에서 끊임없이 이 말들을 살아있게 하는 운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반성폭력 운동이 성취한 일련의 관점과 개념들이 살아있는 운동과 멀어져 활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광의의 성폭력(gender based violence)와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사이의 간극이 사고되지 않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기존에 '성폭행'이라고 이미지화된, 성기삽입이라는 가해 행위 중심의 성적인 폭력, 범죄 행위만

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성에 대한 폭력’ 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적인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폭력 사건을 같은 층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성폭력이라고 명명된 성적인 피해의 양상과 맥락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같은 사건을 다양한 정도의 피해로 받아들입니다. 피해를 해석하고 치유 및 생존해 나가는 방식이나 걸리는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성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경험에는 단지 그 당시 성학대의 충격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의 부정과 침묵, 비밀스럽고 금기시하는 태도, 사회적 낙인과 시선들은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게끔 하는 기제가 된다. 성적 학대의 경험을 ‘말할 수 없는’ 망각된 기억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바라보는 사회이다.”²⁾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작은말하기’를 지지하는 사건해결을 고민하며, 반성폭력 학칙에서 제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와 같은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건을 고민이나 질문, 대화가 부재한 채로 일괄적으로 성폭력으로 이름 붙여 일정한 논리에 의거한 일정한 절차로 해결한다면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발생시 대부분 대책위가 꾸려지지만 대책위 구성원 중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이가 없어 절차적 사건해결은 끝났으나 피해자의 피해감, 억울함, 분노 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답답함만 남긴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 와중에 공동체 구성원, 학내 언론, 학교 본부의 2차 가해가 속수무책으로 자행되어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선본 <루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성폭력 운동을 제안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의 합의 과정을 되새겨 봅시다. 왜 그렇게 명명하고 정의했는지 예전의 작업을 환기시켜 봅시다. 그래서 여성주의를 지지하고 풀어나가는 학생들이 자치규약을 설명하고 전달할 단순한 매개자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이라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논의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운동이 발굴하고 합의한 문제의식과 움직임 자체를 파고들어 구체적인 사례들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여연자연) OT/새터 자료집 발간이나

2) 프레시안, “[프레시안 books] 정국의 <섹슈얼 트라우마>”, 장다혜, 2012-11-09

2011년 선거 공동공약 등 성평등 자치규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학생단위들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공약2 정형화된 성폭력 사건 해결에 들어맞지 않는 사건들을 기록한 사례집 발간

성적인 폭력에서 유발된 성적인 피해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 피해감과 억울함, 분노, 괴로움은 있는데 이게 정말 성폭력인지, 혹은 이걸 꼭 성폭력이라고 불러야만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지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지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누군가의 주체성 및 성적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으로 전락시키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성폭력인지 답답할 때, 사건해결은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항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싶을 때, "언니 이거 성폭력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총여학생회 <루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서 실질적인 도움과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공약 3 성폭력 사건해결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교육투쟁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합니다. 학생단위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비롯, 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 및 치유에 힘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충과 예산 편성, 기관 확보를 요청하겠습니다. 송도, 백양로 프로젝트 등에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제도적 물리적 개선은 나 몰라라 하는 학교와 싸우겠습니다.



반

아카데미

법률·의료·교육
*법률·의료·교육
*법률·의료·교육

의료·법률·교육
*의료·법률·교육
*의료·법률·교육



반성폭력

반성폭력
자치규약 다시 쓰기



약
돈에
기

대한적 의료 관점 제시
*대한적 의료 관점 제시
*대한적 의료 관점 제시

몸의 성별규범 벗어나기

활동하는 몸 찾기
*활동하는 몸 찾기
*활동하는 몸 찾기

몸



교육권

교육권 재구성하기

높은 일상을
는 순간

로



